

부활성야 제 7 독서후

박재광 마티아

시편 42(41),3. 5abcd. 43(42),3. 4 (후렴 42(41),2)

후렴.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, 하느님,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.

1.제 영혼이 하느님을,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.
 2.영광의 초막, 하느님의 집까지,
 3.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,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.
 4.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다.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.

1.하느님의 얼굴을, 언제 가서 뵈오리이 까?
 2.환호와 찬미 소리 드높은 가운데, 축제의 무리와 행진하였나 이 다.
 3.당신의 거룩한 산,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.
 4.하느님, 저의 하느님, 비파 타며 당신을 찬송 하오리다.